

박람회 성공 개최 힘 모아도 부족한데...

여수 개인택시 파업 결의 ‘물의’

“무료 시내버스로 손실” 주장... 시민들 자제 촉구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막(5월 12일)을 불과 30여일 앞두고 여수 개인택시 업계가 파업을 결의, 대회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수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박람회의 메신저 역할과 손님맞이에 앞장서야 할 운전자들의 집단행동은 대회 성공 개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파업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개인택시 여수시지부(제2지부장 고희곤·이하 개인택시 지부)는 “지난 3일 전남 체육관에서 개인택시 여수 시지부소속 760대의 택시 중 620여대가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86.1%인 534대가 찬성, 파업을 결의했

다”고 9일 밝혔다.

개인택시 지부는 “3차례의 ‘승용차 안타기 캠페인’ 과정에서 택시를 타야 할 승객들이 시내버스 무료로 이용하는 바람에 운전자들이 하루 2만~3만원의 손실을 봤다”며 “여수시가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파업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수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상훈 여수 YMCA 사무총장은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꾀술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할 택시업계가 각별한 소명을 갖춰야 함에도 눈앞 이익에만 급급해 하는 모습에 안타깝다”며 “택시업계가 박람회기간 교통 혼

잡 때”라고 주장했다.

여수시는 “박람회 지역특수를 위해 이순신 광장, 용기공원 등에 설치될 엑스포 터미널에 택시 승강장이 새로 생겨 사실상 박람회 특수가 예상됨에도 개인택시 업계가 승객 감소를 주장, 수익금 손실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석 여수시 건설교통국장은 “택시업계의 주장대로 정발 손실분이 있는지 박람회 기간 93일 동안 시물레이션을 통해 수익금을 분석해 감소되었을 땐 보상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며 “개인택시 업계 측과 면담을 통해 시민들이 우려하는 파업으로까지 치달지 않게 협상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m@



“댄스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순천시 주암댐 인근 주민들이 최근 효나눔복지센터(관장 조병철) 개관 2주년 기념식장에서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주암댐관리단(단장 김관중)은 지난 2010년 주암댐 인근지역 노인들의 복지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나눔 복지센터’를 개관했다.

순천 도심 도로상황 실시간 확인

‘지능형 교통체계’ 1차 완료

순천시는 최근 ‘지능형 교통체계’(ITS) 1차 구축작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

시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와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해부터 국비 30억원·시비 30억원 등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동안 ▲교통정보 수집장치 41개소 ▲교통 상황 관리를 위한 CCTV 11개소 ▲도로전광판 8개소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실시간 교통상황 관리 및 제어를 위해 시청내에 종합교통 상황실 구축 등을 추진했다.

또한 버스정보 시스템·주정차 단속 시스템과 연계시켜 ▲버스정보 ▲불법 주정차 단속정보 ▲교통소통정보 ▲첨단 신호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최상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지능형 교통체계 1차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시민들은 도심 주요 도로에 설치된 도로 전광판을 통해 소통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또 인터넷(its.sc.go.kr)이나 모바일(mits.sc.go.kr)을 통해서도 쉽게 교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jy@

순천교도소내에서 자생식물 재배·보급

국립 생물자원관·대한종묘원과 업무 협약



순천교도소(소장 지상연)와 국립 생물자원관, 대한종묘원은 최근 자생식물 복원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순천교도소내 수용자가 직접 벌초 위기·한국자생·지역특산종인 한라부추 등 8종 1만개체를 재배·보급함으로써 교유 생물자원 보전과 수용자 정서순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법무부와 환경부는 지난 3월 13일 국가생물자원 보전과 함께 수용자 교화를 돕고자 수용자가 직접 벌초종위식물 등을 재배·보급하는 ‘자생식물복원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자생식물 복원 시범 사업기관으로 선정된 순천교도소는 수용자 스스로 자생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배양능력을 습득해 향후 사회적 참여 등 재출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기관(국립 생물자원관·대한종묘원)과 1:1 맞춤교육을 주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지상연 소장은 “수용자가 직접 자생식물 재배를 통해 정서순화와 함께 출소후 사회적기업 창업 등으로 새로운 희망을 키울 수 있다”며 “증식된 자생식물은 장애인·양로원 등 복지시설에 기증해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여수 제조업 2분기 경기전망 밝다

여수지역 제조업체의 2·4분기 경기가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여수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여수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2·4분기 기업경기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기업경기 전망지수’

(BSI)는 전분기 대비 ‘112’로 나타나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조사됐다.

BSI는 기업들의 현재채감 경기를 수치화 한 것으로 기준치는 ‘100’이며, ‘100’을 초과할때는 호전으로 ‘100’미만일 때는 그 반대를 나타낸다.

업체별로 보면 석유화학 업체의 올

해 2·4분기 BSI는‘108’로 조사돼 올해 2·4분기의 경기는 1·4분기와 대비해 호전될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업체도 올해 1·4분기 실적치는 전분기 대비 ‘82’로 나타났으나, 2·4분기의 BSI는 ‘127’로 조사돼 경영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총선·대선 등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서는 60% 이상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전 북

‘순창 장류 축제’ 11월 2~4일 개최

‘제7회 순창 장류(醬類)축제’가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순창 전통고추장 민속마을 일대에서 열린다.

순창 장류축전 추진위원회는 최근 군청에서 회의를 열고 장류축제를 통한 지역마케팅 강화와 ‘돈 버는 소득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강전산 등 주변 관광지 와 연계한 20만명의 관광객 유치로 축제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15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순창에서만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장류테마 중심의 산업형 축제로 부각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장류체험, 공연·경연, 주민참여행사, 농특산물 전시 판매, 학술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경쟁력을 갖출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을 서울 인사동에서 재현하고, 우리집 전통매주 만들기 체험을 통한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 확충, 소스를 테마로 한 전시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정읍 샘고을 시장’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 선정

정읍 샘고을 시장이 중소기업청 주관의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으로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

정읍시는 “중소기업청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공모사업에 응모해 전국 31개 전통시장과 치열한 경쟁 끝에 샘고을시장이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13년까지 2년간 국비 10억원을 포함한 총 24억원을 투자해 청년과 관광객이 찾아오는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중심의 전통시장 육성을 통해 특색 있고 재미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의 변신을 꾀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KTX 남원역 상시 정차 결정

3회에서 5회 모두...내달부터 운행시간도 변경

다들달 1일부터 KTX가 남원역에 상시 정차한다.

남원시는 “지난해 10월 전라선 KTX 운행이후 남원역의 경우 5회 통과에 3회만 정차했으나, 최근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왕복 5회 모두 정차키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KTX 상시 정차를 위해 국회의원·남원시의회·도위원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동참과 지원을 바탕으로 KTX 남원역 정차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여 차례의 중앙 및 관계기관 의 방문 건의를 비롯해 남원시의

회의 성명서 발표, 남원역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국회의원 의 관계부처 수회 방문 강력한 요구 등 끊임없는 증차 노력이 결실을 맺은 셈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9월 착공한 전라선 고속화사업을 이달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150km에서 230km까지 가능하도록 해 운행시간 단축으로 열차 운행시간이 다소 변경될 전망이다.

시는 남원역 활성화와 환승객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남원역 이용 관광객에 관광용

자전거 제공 ▲관광안내소 설치 ▲철도 여행상품 개발 ▲KTX 이용객 광한루 무료입장 등 여행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KTX가 남원역에 추가 정차함에 따라 남원시가 선진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5월 1일부터 변경되는 KTX 남원역 정차시간은 상행 6시 14분 10시52분·하행 1시 46분·4시 27분·7시 59분이며, 하행 오전 8시 12분·10시 40분·오후 1시 6분·4시 51분·밤 10시 17분으로 왕복 5회 운행된다. 남원에서 용산까지는 2시간 35분이 소요된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단 신

50cc 미만 이륜 자동차 번호판 부착 의무화

50cc 미만 이륜 자동차도 번호판을 달고 운행해야 한다.

전북도는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시 피해보상, 범죄이용, 도난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6월 말까지 의무보험가입과 사용신고 후 운행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했다.

7월1일 이후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시속 25km 이상 이륜 자동차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해경 면세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군산해양경찰서는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5월 25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

군산해경은 특별 전담반을 구성해 면세 수급자·취급 담당자 결탁, 정유사·판매대리점·급유업체 간 결탁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관내 선외기 어선 3962척, 양식장 관리선 1381척을 대상으로 면세유 수급 실태와 출·입항 기록, 수취기관 실적 등을 비교해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정읍시 감곡면 감나무 심기 행사

정읍시 감곡면은 지난해부터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감나무 명품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최근 기관·단체 주민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감곡을 감나무 고을로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감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화봉리 벽돌공장 입구에서 풍촌마을을 지나 는 지방도736호선 주변 500m에 감나무 200그루를 식재했다.

또 지난해 식재된 감나무중 추위로 동사한 100그루를 보식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김제경찰 ‘복소리 제도’로 눈높이 치안

김제경찰서(서장 이상주)는 시민 254명을 대상으로 ‘치안복소리 제도’ 4차 설문조사를 완료했다. 조사결과 ▲김제 중앙병원 단속 카메라 제한속도 조정 ▲김제 이서선 중앙분리대 설치 ▲사건처리 진행사항 중간통보 ▲처

리 결과에 대해 피해자에게 통보 등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상주 서장은 “앞으로 치안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복소리를 경청해 ‘주민눈높이 치안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운선기자 hnews@

새 얼굴

“소신껏 일하는 조직 풍토 만들것”

박기봉 남원시 부시장



“남원 발전을 견인하며,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10일 취임하는 박기봉(58) 남원시 부시장은 “화합과 협력의 기반 위에 지역 공동체 만들기과 선진 행정 시스템 구축,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공무원 조직 안정과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 부여를 통해 소신껏 일하는 조직 풍토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실 출신인 박 부시장은 신홍고와 한국방 송통신대를 졸업하고 전북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했으며 1979년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전북도 기업지원담당, 인사담당, 체육진흥과장, 대외협력과장 등을 역임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우리가 만든 꽃밭 어때요?”

순창을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서한복) 회원 20여명은 최근 경천교량과 공한지에 각종 꽃밭을 조성했다. 주민자치위는 앞으로 읍내 도로변 공한지에 꽃밭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